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수립된 이후 1945년 광복되어 환국할 때까지 한국독립운동의 유일한 최고기관으로서 그 법통을 이어왔다.

임시정부는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있어서 상징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지휘했으며, 그 자신이 매우 중요한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의 기능 중에서 가장 고유한 활동 중의 하나가 외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시정부는 단일민주정부로서 통합하기 이전부터 국가의 완전독립을 위해 외교공세를 펴서 이후 27년 동안 꾸준하게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임시정부는 파리강화회의와 국제연맹, 그리고 프랑스, 영국을 포함하는 유럽에 대한 외교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외교와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였다. 임시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서 그 때마다 외교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1919년에는 파리강화회의와 국제연맹을 대상으로 해서 열강으로부터 한국독립을 보장받고자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강화회의와 국제연맹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19년 8월에 개최된 제2 인터내셔널 회의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받는 쾌거가 있었다. 그러나 이 회의의 성격이 국제회의이기는 했으나 정부차원의 승인이 아닌지라 큰 기대를 갖지 못하고 태평양회의 이후 임시정부는 외교정책의 방향을 열강으로부터 개별적으로나마 임시정부를 승인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정부는 각국의 정부나 민간지도자들을 상대로 해서 외교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이것은 당장에 한국독립을 보장받거나 정부를 승인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독립운동의 지원을 획득하려는 것이었다. 임시정부의 이와 같은 외교활동은 유럽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지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되었다. 임시정부의 꾸준한 외교활동으로 한일합병 전후에 일방적으로 일본을 돕던 열강들이 한국민족의 독립호소가 이유 있고 정당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국제여론에 일제의 부당한 침략행위를 폭로하는데 큰 구실을 하게 되었다.

한국은 서구열강의 극동 국제관계에서 망각된 것이 아니었으며, 특히 3·1독립운동 이후 한반도 사태는 극동의 국제 관계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영국을 비롯한 열강들이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고 나선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었다.